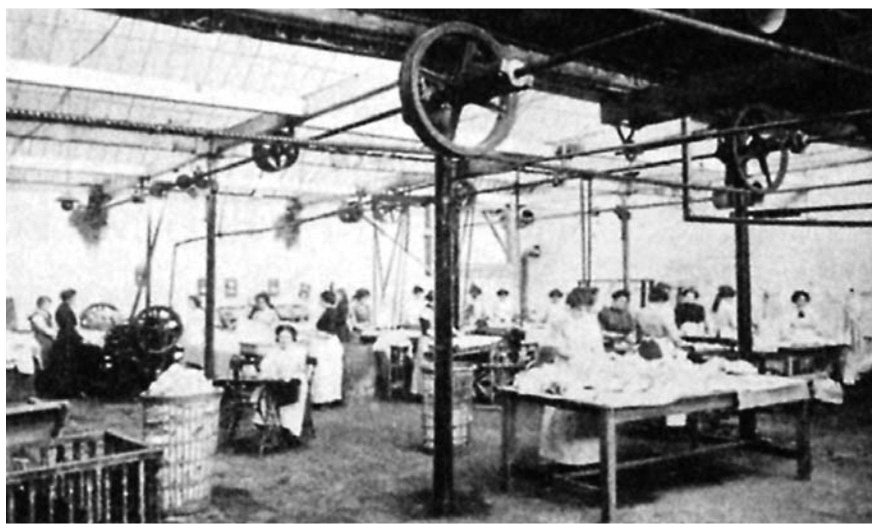
뭐! 세탁기가 주부를 가사노동서 해방시켰다고?

세탁기의 배신

김덕호 지음



가전제품이나 기술이 도입됐어도 가사노동시간이 늘었다는 것은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대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1920년대 증기 세탁소 장면. 〈뿌리와 이파리 제공〉

어떤 이는 집안일을 "해도 티가 안 나는 일"이라고 말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가정주부의 하루는 티가 안 나는 일의 연속에 다름 아니다. 그만큼 전업주부는 단 하루도 집안일에서 해방되기가 어렵다.

2018년 우리나라가 가사노동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적이 있다. 통계청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2014년 기준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무급' 가사노동의 1인당 시장가격이 710만8000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전체 국민으로 계산하면 360조7300억원으로 여성이 272조4650억원, 남성은 88조2650억원에 달했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4.3%에 달하는 수치다.

잠시 일반적인 전업주부의 오전 일과를 그려보자. 아침에 토스트를 굽거나 전기밥솥에 밥을 한다. 간단한 음식의 경우 가스레인지를 돌려 뎁히기도 한다. 식사가 끝나면 남편과 아이들은 직장과 학교로 향한다. 이때부터 주부의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된다. 설거지와 음식쓰레기를 분리하고 이후 구석구석 집안 청소를 한다. 널브러진 옷가지를 세탁기에 넣고 집안을 정리하는 것도 이때부터다.

주부의 이러한 일과는 대체로 가전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진행된다. 다시 말해 가전제품, 즉 가사기술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일상을 꾸려가기 힘들다.

그런데 가전제품의 편리와 효율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안겨준 측면이 있다. 세탁기가 더 많은 빨랫감을, 레인지가 더 많은 요리를 강제한다는 의미다. '욕망의 코카콜라'의 저자 김덕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교수가 펴낸 '세탁기의 배신'은 가사기술이 여성들을 과연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켰는지를 반문한다.

저자에 따르면 가전제품은 여성을 해방시키기는커녕 역설적으로 다른 일거리를 안겨주었다. 가사노동의 강도를 줄인 대신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지겨운 일과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저자는 1920년대 미국의 가전제품 광고가 주부의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켰는지 들여다본다. 사실 가사기술의 능력과 연계된 이상적인 여성상은 지극히 고전적이다. 즉 바깥에서 고군분투하고 돌아온 남편을 위해 집을 천국 같은 안식처로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책에는 당시 미국의 시대별 인구센서와 잡지 광고를 통해 트렌드를 분석한 내용이 나온다. 한편으로 가사기술에 대한 연구, 서구 페미니즘이 가사기술에 끼친 영향도 개괄한다. 분명한 것은 가전제품들이 줄줄이 도입됐는데도 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더 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명비평가 이반 일리치는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그림자 노동'(shadow works)로 정의했다.

"그것에는 여성이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가사, 쇼핑에 관계되는 여러 활동, 집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위하며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것,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통근에 드는 수고가 포함된다."

다시 말해 그림자 노동은 청소, 빨래, 다림질, 음식하기, 설거지, 육아, 양육 등과 연계된 가사노동을 일컫는다. 가족에 대한 희생으로 무임금이 정당화되는 시작과 끝이 없는 노동이다. 편리한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출현해도 가사노동이 그림자노동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남편과 자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주부의 가사노동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오늘날 미국 사회건 한국 사회건 가부장제가 많이 부식되었지만 여전히 아내와 주부는 끊임없이 감정을 소비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정을 유지하는 데, 아이를 돌보는 데 사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거나, 더 많이 구입하거나, 더 크게 집을 넓힌다면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 혹은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여유로운 삶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뿌리와 이파리·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슴 뭉클한 가족 이야기, 코로나19 등 담긴 첫 산문집

사랑 밖의 모든 말들

김금희 지음

아린 기억을 공유하는 두 사람이 한 회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이나 소설집 '너무 한낮의 연애', '오직 한 사람의 차지' 등에 실린 김금희 작품의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시선은 따뜻해 읽고 나면 위로를 받는다.

신동엽문학상, 현대문학상, 2016 젊은작가상 대상 등을 수상한 소설가 김금희가 등단 후 11년 동안 쓴 글을 모아 첫 산문집 '사랑 밖의 모든 말들'을 펴냈다. 책에 실린 42편의 글들은 유년시절의 기억과 가족, 소설가로의 꿈을 키워가던 시절, 사랑과 연애에 대한 단상, 사회문제와 노동에 대한 시선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글에서 많이 등장하는 가족, 특히 엄마에 대한 글은 뭉클하게 다가온다.

또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을 읽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하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환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라는 문장에 매혹됐던 대학시절 이야기도 눈에 띈다.

그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상문학상'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인데, 저자는 '노동의 조건'이라는 글에서 담담하게 풀어낸다. 소설가가 되기 전 출판노동자였던 작가는 "당연히 팔려야하는 상품이지만 또 무조건 팔리기만 하면 그만이 아닌 책의 이중적인 조건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그 책이 세상으로 나가 일으켰을, 지금 당장은 추측할 수 없는 영향력, 일렁임 같은 것을 상상하면 다음 책을 만들기 위해 다시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했었다. "작가에게 있어 생계와 자신의 존엄, 그리고 이후의 노동을 반복할 수 있는 힘"인 저작권을 양도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녀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상문학상 수상을 거부했다. 글에는 그 사건을 겪고 환멸과 기대와 희망을 동시에 느낀 이야기가 담겼다.

최근의 글까지 담긴 책에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모두 힘들기는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던 시간의 의미에 대해 지금보다도 알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는 작가는 "이전의 일상이 점, 선, 면이었다면 선은 지우고 면은 축소해 '점'의 방식으로 살아야하는 요즘" 외출이 줄어든 대신 방에서 보이는 발코니에서 매일 밤 자고 가는 비둘기를 새롭게 만나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한다.

그녀의 글을 통해 읽고 싶은 책을 만나게 되는 건 이 책이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아직 그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이 위대하고 언제나 나를 압도하는 작가에 관해, 그를 향한 내 열정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며 소개하는, '제발디언(제발트 문학에 열광하는 독자들)'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독일 작가 제발트의 작품들이나 2000편에 달하는 시를 썼지만 생전에는 단 7편만 발표한 19세기 시인 에밀리 디킨스의 시와 그녀의 삶을 다룬 영화 '조용한 열정' 등이다.

〈문학동네·1만3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정신과 전문의인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마음 치유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서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이 만나 '인생'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책에는 불안과 욕심, 상처 등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 자존감, 창의성 등 건강한 자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 등에 대한 해법이 실려 있다. 〈샘터·1만6000원〉

▲시절과 기분=소설가 김봉곤이 201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래 두 번째로 펴낸 소설집으로 2018~2019년에 발표한 작품 6편을 발표 순서대로 엮어냈다. 표제작인 '시절과 기분'은 주인공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귄 여자 혜인을 7년 만에 다시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이며 이밖에 '데이 포 나이트', '나의 여름 사람에게' 등이 수록됐다. 〈창비·1만4000원〉

▲이정현의 집밥레스토랑=가수이자 배우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정현. 최근 그녀가 방송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요리하는 아티스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장안의 화제인 만능 간장부터 바질 페스토, 닭볶음 감자 크로켓, 달걀장, 에그노그 커피까지. 그녀의 인기 메뉴는 양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쌓여가고 있다. 책은 그가 펴낸 요리서로 총 10가지 주제에 나눠서 101가지 레시피를 소개한다. 〈서사원·2만2000원〉

▲생각하는 여자=줄리아 크리스떼바, 로지 브라이도티 등 여성 사상가들에게 사랑, 놀이, 일, 두려움, 경이, 우정이라는 여섯가지 주제를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수록한 줄리엔 반 룬의 철학 에세이다. 인정받는 지식인이지만 출산과 육아, 성차별로 인한 승진실패와 잦은 이직 등 그녀들 역시 여성이 겪는 일상의 문제에 부딪혀왔다는 고백을 담았다. 〈창비·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내 엄마 아빠가 되어 줄래요?=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기들이 있다. 부모의 축복과 사랑 속에 태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아야 할 순간에 보육원에 맡겨진다. 새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태오를 통해 입양해 줄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을 보여주고, 꿈 보다 먼저 부모를 찾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그렸다. 〈고래이야기·1만3000원〉

▲움직이는 우리말, 동사='낳다'와 '낫다', '붙이다'와 '부치다',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등 반대말이거나 비슷한 뜻을 가진 두 동사, 또 헛갈리기 쉬운 두 동사를 두 개씩 짝지어서 간결하게 소개한다. 동사의 기본 뜻과 쓰임뿐 아니라,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어떻게 뜻이 달라지는지까지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뜨인돌어린이·1만3000원〉

▲마고의 샘물=거인여신인 마고할미는 이 세상의 자연물과 지형을 창조한 창세신으로, 엄청난 키와 몸집을 자랑한다. 치마폭에 싸서 나르던 흙이 떨어져 산이 되고, 오줌을 누자 하천이 되는 등 마고할멈과 관련된 신화는 그야말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 책은 바로 그 마고할미 신화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힘센 존재, 엄마 그리고 엄마의 엄마를 이야기한다.

〈바람의아이들·1만1000원〉